

해 외 출 장 보 고 서

중국 쌀 해외모니터 선정 및 농업 데이터베이스 공유 협의를 위한 해외출장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출장목적

- 쌀 관측보와 관련하여 중국 쌀 해외모니터 신규 선정
- 중국 농업부 정보중심과 농업관측정보센터와의 MOU체결 (2004.12)로 인한 가격·거래량자료 추가 확보 및 공유 협의
- 중국 쌀 재배단지 및 유통업체를 방문, 생산 및 유통 실태 등 파악

2. 출장자

- 초청연구원 박미성(농업관측정보센터)
- 위촉연구조원 이인숙(농업관측정보센터)

3. 출장기간: 2007. 11. 27 - 11. 30(3박 4일)

4. 출장지역: 중국 흑룡강성, 북경

5. 출장결과: 별첨.

출 장 보 고 서

I. 출장개요

1. 출장건명: 중국 쌀 해외모니터 선정 및 농업 데이터베이스 공유 협의를 위한 해외출장

2. 출장목적

- 중국 쌀 해외 모니터 신규 선정(북경)
- 중국 농업 데이터베이스 공유 및 업무 협의(북경)
- 중국 쌀 생산 실태 조사(오상, 하얼빈)
- 중국 쌀 유통 실태 조사(하얼빈)
- 대형유통업체 매장 방문 조사(북경)

3. 출장기간

- 2007년 11월 27일(화)~11월 30일(금)(3박 4일간)

4. 출장자

- 박미성: 초청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쌀팀
- 이인숙: 위촉연구조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정보화팀

5. 출장 세부일정

	세부일정
11.27(화)	· 인천→하얼빈(북대 황그룹제품전시장, 흑룡강성 신우량유 도매시장)
11.28(수)	· 하얼빈→민주항→오성→하얼빈 (쌀 도정업체, 쌀 재배단지, 흑룡강성 농업과학원)
11.29(목)	· 하얼빈→북경 (KREI 중국사무소, 쌀 해외모니터 선정, 중국농업부 정보중심)
11.30(금)	· 북경: 대형유통업체(까르푸) 방문

6. 면담자

성명	소속	주요 면담 내용
李成貴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소 농촌정책연구중심 주임	중국 쌀 해외모니터 선정
郭作玉	중국농업부 정보중심 주임	농업 데이터베이스
張欢	중국농업부 정보중심 분석사	쌀 수급 및 가격
王家農	중국농업부 정보중심	농업 데이터베이스
湯艳丽	중국농업부 정보중심	농업 데이터베이스
孟英	흑룡강성 농업과학원 경작재배소	쌀 재배품종 등 생산현황
孫树春	하얼빈시 민주향정부 농업기술보급	쌀 생산현황

II. 주요출장결과

■ 중국 쌀 해외모니터 신규 선정

- 농경연 중국 사무소 정정길 소장님 소개로, 중국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소 농촌 정책연구중심 주임인 이성귀 박사를 중국 쌀 해외모니터로 신규 선정함.

< 중국 쌀 해외모니터의 신상명세 >

- 성명: 李成貴(국적: 중국)
- 소속: 中國社會科學院 農村發展研究所
(Rural Development Institut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 주소: No.5 Jianguomennei St. Beijing 100732, China
- 중국주민등록번호: 110108196609227133
- 계좌번호: 4103200-0188-016971-5
- 은행명 및 은행주소:
Bank of China Beijing Jin Song Dong Kou Sub-branch
- 연락처:
- 전화번호: +86-10-8519-5656(사무실)
+86-136-2106-9010(핸드폰)
- email: chenggui@yahoo.com lichg@cass.org.cn



■ 중국 농업 데이터베이스 공유 및 업무 협의

○ 가격자료 전송 현황 검토

- 대부분의 중국 가격 자료 전송이 양호한 편임
- 미비 전송 품목(건고추, 동부쌀)에 대한 농업부 정보중심 수집과정에서의 애로 사항 확인함

▶ 건고추

- 한국으로의 중국 건고추 수출량이 많음에 따라 본원 건고추 관측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정확한 가격자료 확보를 요청함
- MOU체결시에 매일 15개 중국도매시장의 가격자료 전송에 합의
- 현재 전송상황은 2003년 7건(4~5월 북경신발지도매시장), 2004년 1건, 2005년 1건(산둥수광도매시장)으로 미비함
- 중국 도매시장내 건고추 거래비중이 전체 약 2%정도로 낮아 각 도매시장 전산 입력자에 의한 정보 누락이 있음. 또한 중국내 수출용 건고추는 도매시장에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가격정보 신뢰성이 떨어짐. 각 도매시장에 협조공문을 다시 보내어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합의함.

▶ 동북쌀

- 2006년 7월 양해각서에서 곡물 도매시장(북경성북회통관대중사상품교역시장, 북경금수대지옥천로양유도매시장)의 중국 쌀 가격자료를 공유하기로 합의함.
- 현재 전송상황은 2007년 4월 2건(길림양식중심도매시장, 흑룡강가목사삼강식품회사)으로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음
- 동북쌀(자포니카쌀)은 우리나라 주식과 비슷한 품종으로 국내 관심사가 크므로 데이터 확인 작업을 통해 원활한 데이터 전송이 되도록 합의함.

○ 거래량 전송 현황 검토

- 중국이 한국에 채소, 과일, 곡물에 대한 각 도매시장의 거래량 자료를 전송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턱없이 적음.
- 중국 농업부 정보중심에서는 각 도매시장에서 입력해주는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측에 정확히 전송해주고 있지만, 각 도매시장에서 정확한 물량을 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데이터 입력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임.
- 좀 더 정확한 거래량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는 신뢰성이 떨어진 거래량 자료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함.

○ 중국 농업부 정보중심 자료 수집 체계 현황

- 가격, 거래량 등의 자료를 정확하고 빠르게 수집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체계적으로 기획하여 2007년 6월에 중국내 각 400여개 도매시장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전산입력망 구축을 완료하였음.
- 도매시장 자료 수집체계가 나아짐에 따라, 앞으로 정확한 자료 전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400여개 도매시장내 전산입력에 관한 교육 문제로 정확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입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됨.

○ 기타

- 2004년 12월 MOU 체결로 양국의 가격 및 거래량 자료가 공유되고 있음.
- 이에 연구원에서는 원내에 공개하여 월보 작성에 필요한 해외정보 등으로 잘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 농업부 정보중심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중요한 분석자료로 활용되며, 일부는 외부에도 공개하고 있음
- 이에 양국의 더 많은 품목에 대한 신뢰성있는 자료 공유가 되도록 뜻을 같이함
- 한국자료가 잘 들어오지 않는 품목에 대해 점검하여 e-mail로 보내주기로 함. 이에 연구원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 취하도록 할 예정임

■ 중국 쌀 생산·가공 실태 조사

◆ 중국 농업부 정보중심, 흑룡강성 농업과학원 경작재배소

- 중국은 세계 쌀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1위 생산국이며, 수출량의 5%를 차지하는 6위 수출국임. 중국의 쌀 재배면적은 1990년부터 감소추세였다가 2004년 이후 소폭 증가추세로 전환됨.
- 중국 국내 자급률은 80~100%이며, 수입의 93%는 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장립종임. 중국 쌀 수출량은 140만톤이며, 러시아, 코트디부아르, 쿠바, 일본, 북한, 한국, 리비아, 카자흐스탄 등에 수출됨.

< 중국의 쌀 수급 현황 >

단위: 천ha, 천톤, kg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p)
면적	33,064	30,744	29,962	28,812	28,202	26,508	28,379	28,847	29,295	29,600
생산량	132,532	129,650	131,536	124,306	122,180	112,462	125,363	126,414	128,000	129,700
수출량	689	265	1,847	1,963	2,583	880	656	1,216	1,400	1,500
수입량	68	852	270	304	258	1,122	609	654	700	900
소비량	123,911	131,237	134,300	136,500	135,700	132,100	130,300	128,000	127,800	129,100
재고량	94,000	84,500	93,009	79,156	63,311	43,915	38,931	36,783	36,283	36,283
1인당 소비량	107.9	107.9	105.8	106.9	105.7	102.3	100.3	98	97.3	97.7

- 중국의 쌀 소비량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2006년 기준 1인당 소비량은 97.3kg임.
- 중국 중단립종 쌀의 주요 생산지는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인 동북3성이지만, 강소성 등 양자강 중하류지역에서도 중단립종 쌀의 생산면적이 확대되고 있음.
- 전국 쌀 생산량 중 30%가 중단립종이며, 중단립종 생산량의 18%는 강소성, 31%는 동북3성에서 생산됨.
- 동북3성의 중단립종 쌀 생산량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 기준 동북3성의 쌀 생산량은 전국 쌀 생산량의 11.6%를 점유함.

< 중국 중단립종 생산 주요 지역의 중단립종 쌀 생산량 추이 >

단위: 만톤

	1985	1990	1995	1997	2000	2002	2006
흑룡강성	163	3145	470	861	1,042	921	1,205
길림	184	289	297	376	375	370	493
요녕	263	369	262	386	377	406	427
동북3성	610	973	1,029	1,623	1,794	1,697	2,125
강소성	527	518	623	762	951	984	-
절강성	240	269	324	429	520	513	-
안휘성	262	282	310	371	480	520	-
장강 중하류	1,029	1,069	1,257	1,562	1,951	2,017	-
전국	16,857	18,933	18,523	20,074	18,791	17,454	1,8257
동북/전국(%)	3.62	5.14	5.55	8.08	9.55	9.72	11.6

- 흑룡강성 농업과학원은 1956년에 설립되었으며, 28개 산하 연구소, 112개 연구실이 있음. 흑룡강성 농업과학원 산하 수도연구소(경작재배소)는 1972년에 설립되었으며, 연구인력은 52명임.
- 흑룡강성은 일조시간이 길고 벼 생장계절의 일교차가 커 양분 형성과 축적에 유리함. 벼 생산지로서의 환경 조건이 비교적 우수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도 전국 평균치보다 아주 낮으며 물과 토양의 오염도가 낮음.
- 따라서 흑룡강성의 중단립종 쌀은 품질이 우수하며, 중국 농업부 녹색식품발전센터에서의 녹색식품¹⁾ 기준에 부합하는 중단립종 쌀 생산지는 주로 흑룡강성에 집중되어 있음.
- 흑룡강성 농업과학원 수도연구소에서는 수도육종, 품종 개발, 병충해 방지, 재배기술 전파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흑룡강성에서 재배되는 벼 품종의 70%는 수도연구소에서 개발된 품종임. 품종개발 연구사업은 다음과 같이 3기로 구분할 수 있음.
- 1기 1950~1959년: 품종 수집
- 2기 1960~1979년: 수집된 품종중에서 선택 육성, 교접한 품종 개발
- 3기 1980~2000년: 병충해방지 품종 개발 연구, 생산량 많은 품종 개발

1) 녹색식품(Green Food)이란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의 정의에 따르면 '안전, 양질의 품질, 건강에 좋은 식품(원료 및 가공품)'의 총칭임. '녹색식품'은 그 생산, 환경, 유통조건 등에 대한 규제의 차이에 따라 'AA급'과 'A급'으로 나뉨. AA급은 엄격한 생산기준(대기, 토양, 수질, 종자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생산된 것으로 '유기농산물'에 상당하는 것임. A급은 그 기준이 다소 유연하며, 농약과 화학비료의 저투입 농산물에 상당하는 것임.

- 흑룡강성에서 인정하는 벼품종은 154개이며, 이 중 우수장려품종 38개, 교접한 품종 102개, 배양품종 13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현재 재배면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종은 용도5호, 용도 7호이며, 벼 단수는 850kg/10a, 쌀 단수는 595kg/10a임. 이는 일반 품종의 벼단수 750kg/10a, 쌀 단수 525kg/10a보다 13%정도 생산량이 많음.
- 과거의 쌀 정책은 생산량 위주였지만 현재는 생산량과 품질 위주로 전환됨. 따라서 무공해 녹색식품을 장려하며 인증유무에 따른 가격차별을 두고자 함.
- 농민이나 도매상이 무공해 녹색식품 인증을 신청해서 받기까지 비용이 소요되므로 향정부나 정미공장이 지역을 대상으로 무공해 인증신청을 하는 편임. 흑룡강성은 중공업이 없으므로 신청하면 대부분 인증이 가능하다고 함.



◆ 흑룡강성 오상시 민락향 농가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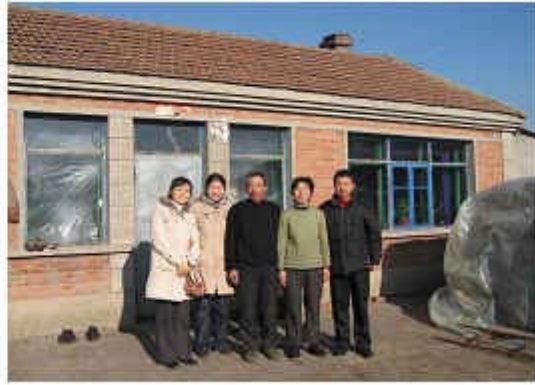
- 하얼빈시에서 1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오상시 민락향이 있음. 오상시에서는 4월에 육묘하여 5월 상순~중순경에 모내기를 함. 모내기는 이앙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사람이 심음. 농업기계 구입시 1/3은 정부가 보조해줌.
- 수확시기는 9월 중순~10월 초이며, 수매가격은 1.4~2원/500g임.
- 오상시 민락향에서 재배된 쌀은 품질이 좋은 편이어서 시장 유통보다는 기업이나 공무원 단체 등에 직거래로 거래되는 편임. 민락향 쌀이 유명하여 민락향에 있는 20~30개 도정공장이 있는데 타 지역의 쌀을 민락쌀로 둔갑하여 판매하기도 한다고 함.

○ 오산시 민락향의 벼 재배농가를 방문함.

- 면적: 벼 재배면적은 100무(6.7ha)이며, 그 중 개인소유는 20무, 80무는 한국이나 중국 대도시로 이주한 사람의 농지를 임대함. 1년 임대료는 4,000元/15무(1ha)임.
- 파종 및 모내기: 100무 모내기하는데 약 40명이 2일 동안 일하면 됨. 노동력은 한전을 농사짓는 사람들이 와서 하며, 노임은 10무에 800元으로 100무에 8,000元 정도 소요됨. 1인 1일 노임은 약 100~120元임.
- 수확시기: 9월 20일경. 5~6일이면 수확 가능. 수확기 수매가격은 1.4元/500g임. 작년 수확기 수매가격 1.7元/500g보다는 낮음.
- 판매방법: 기업이나 공무원 단체 등에 직거래, 친척을 통한 직거래, 정미공장에 판매. 설 명절전에 60~70% 판매하고 나머지는 내년 6월까지 저장하다가 시세 봐서 판매함.
- 종자가격: 2元/500g, 종자의 60%는 갖고 있는 품종, 나머지 40%는 사서 사용함.
- 금년 작황: 45톤/100무(6.7ha)으로 평년작 수준임. 작황이 좋을 때는 50톤/100무, 작황이 나쁠 때는 40톤/100무임. 도정수율이 70% 정도이므로 정곡기준 금년 쌀 생산량은 32톤/100무, 단수는 473kg/10a임.
- 농기계: 경운기, 탈곡기, 물뽑는 기계, 작은 정미기 등을 소유하고 있었음.



< 육묘에 이용되는 하우스에 있는 탈곡기와 벼 야적 모습 >



< 오산시 민락향 벼 재배농가 방문 사진 >

◆ 하얼빈시 민주향 도정공장 방문

- 민주향의 경작지 면적은 8만무로 그 중 수전이 3만무(메벼 2만무, 찰벼 1만무), 한전은 5만무(옥수수 2만무, 배추 등 가을채소 2만무, 여름채소 1만무)임. 벼 재배농가는 약 4,000호임.
- 가공공장은 등록제이며 민주향에는 13개 도정공장이 있음. 수확기 1일 가공능력은 30톤 정도이며, 년중 가공함.
- 민주향 도정공장에서는 벼를 0.8元/500g에 구매하여 쌀 500g에 1.3~1.4元에 판매하고 있었음.
 - 무공해 쌀이었지만 구매가격 차이는 아직 크지 않음. 하지만 흑룡강성에서는 무공해쌀을 권장함.
 - 민주향은 메벼 2만무, 찰벼 1만무로 찰벼 면적도 많은 편이어서 메벼와 찰벼 가공중이었음.
 - 사일러는 보이지 않았고 포대벼만 적재되어 있었음.



< 도정공장 앞에 적재한 벼 모습 >



< 천리대미가공공장 모습 >

■ 중국 쌀 유통 실태 조사

◆ 하얼빈시 신우량유(信又粮油) 도매시장

- 흑룡강성 하얼빈시 향반구에 위치해 있는 신우량유 도매시장은 곡물류만 취급하는 도매시장이며, 하얼빈 시내에서 양곡이 가장 많이 거래됨.
- 도매시장 내에는 약 80여개 상가가 있으며, 1개 상가에서의 하루 판매량은 2~10톤 정도라고 함. 주거래 쌀 포장 단위는 25kg, 50kg이며, 포장이 안 되고 포대로 거래되기도 함.
- 쌀 가격은 1.25~2元/500g이며, 오상쌀 가격은 다른 지역에서 재배된 것보다 높은 1.6~2元/500g이었음.



< 흑룡강성 신우량유 도매시장의 모습 >



< 오상쌀 25kg 포장 모습 >



< 오상쌀 25kg, 2元/500g 녹색식품인증 >

◆ 흑룡강성 북대황그룹 제품 전시장

- 흑룡강성 북대황미업유한공사는 흑룡강성쌀가공산업화의 용두기업으로서 “양광지대”로 불리는 세계 3대 흑토중의 하나인 흑룡강성 삼강평원과 국가급 자연보호구인 홍개호수역에 약 1,100만무(73.3ha)의 고품질 수도 재배기지를 갖고 있음.
- 그 중 유기농 녹색재배기지는 500만무(33.3ha) 정도이며, 연간 쌀 가공능력은 207만톤 정도임.
- 회사의 등록자본금은 5.1억위엔, 연간 판매액은 21억위엔임.
- 8대 판매지사와 대리판매상으로 이루어진 전국 판매네트워크가 갖추어져 있음.
- 북대황그룹제품전시장에서는 “북대황, 홍개호, 북주, 자하양, 년윤” 등 9개 계열의 38개 제품과 150여개의 사이즈의 포장제품이 전시되어 있었음.
- 종이상자, 비닐 등 다양한 포장제품이 있었으며, 포장단위는 500g, 1kg, 2.5kg, 4kg, 5kg 등 다양하였고 한국보다는 소포장 위주였음.
- 오상에서 재배된 쌀 가격은 12~14.8元/2.5kg(2.4元/500g), 유기농 쌀 가격은 28元/2.5kg(5.6元/500g), 팔오구농장에서 재배된 쌀 가격은 50元/5kg(5元/500g)로 판매되었는데 2006년산이여서 40元/5kg(4元/500g)에 판매되고 있었음.
- 북대황그룹제품전시장에서 판매되는 쌀 가격은 2.4~5元/500g으로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인 1.25~2元/500g보다 2~4배 높았음.
- 도매시장에서는 산지나 품질 보장이 안되는 반면, 북대황그룹 전시장에서는 품질 보장이 되고 포장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임.



< 북대황그룹 제품 전시장 팸플렛 >

<2006년산 팔오구농장 쌀>

- 흑룡강성 오상에서 생산된 2007년산 쌀을 12.5元/2.5kg(2.5元에/500g)에 구입하여 한국에서 밥을 지어 먹어보았음. 최근 먹고 있던 2007년산 새만금농산 “지평선 쌀”보다 맛은 더 구수하고 품위도 좋았음. 반면, 해남 옥천농협 “한눈에 반한 쌀”보다는 약간 떨어짐.
- 가족들의 “중국 오상 쌀(1등급)”에 대한 품평을 들어본 결과, 올해 집에서 먹어보았던 2007년산 “지평선 쌀”, “순천쌀”, “한눈에 반한 쌀”, “철원 오대미” 쌀 맛이나 품위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거나 더 좋은 편이라고 하였음.
- 실제로 중국쌀로 밥을 지어 반정도 먹을 때까지 중국쌀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밥맛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았음.
- 중국 쌀 포장지에는 경중국 녹색식품 발전중심 허가 상표, 중량, 생산상(오상시 북광정제미유한공사), 밥짓는 요령, 보존기간, 도정일자(2007년 10월 27일), 보존방법 등에 대한 표시가 있었음.



< 중국 쌀과 한국 쌀 포장 모습 >

■ 대형유통업체 매장 방문 조사

◆ 흑룡강성 하얼빈시 Century 마트

- 하얼빈시에서 공항가는 길에 있는 대형 쇼핑센터인 Century 마트를 잠시 방문함.
- 소비자들은 매대에서 판매되는 쌀을 주로 사는 편임. 매대 쌀 가격은 1.36元/500g으로 저렴함. 인상깊었던 것은 남한 식품코너가 따로 설치되어 있었음.
 - 포장 단위는 2.5kg, 5kg, 10kg 등이며, 주 포장 단위인 5kg가격은 15.8~17.6元(1.58~1.76元/500g)임.
 - 최고가로 팔리는 쌀은 날개 비닐로 포장된 것을 종이상자에 한번 더 포장된 것으로 60~102元/10kg(3~5.1元/500g)이었음.



< 쌀 진열대 모습 >



< 한국식품코너 >

◆ 북경 까르푸

- 북경 까르푸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의 쌀이 판매되고 있었음. 포장단위는 2.5kg, 5kg, 10kg 등이며, 주 판매포장 단위는 5kg으로 한국 주 포장단위(20kg)보다 작음.
 - 한국은 쌀을 주식으로 하지만, 중국은 쌀보다는 만두, 빵 등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므로 가정의 쌀 소비량이 적은 편인 것 같음.
- 매대에서 판매되는 쌀 가격은 1.35元이며, 소비자들은 저렴한 매대쌀을 많이 이용한다고 함.

- 주 포장 단위인 5kg 쌀 가격은 20~56.5元/5kg(2~5.65元/500g)임. 중단립종 품종이며 흑룡강성, 길림성 등에서 재배된 것이었음.
- 수입 태국산 장립종 판매가격은 22~25.1元/2kg(5.5~6.27元/500g), 55元/5kg(5.5元/500g)임. 중국산 쌀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
- 쌀 관련 가공품은 쌀 과자 이외에는 보이지 않음.
- 중국인은 밥을 먹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주식으로 먹지 않고, 외식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햇반같은 간편조리식 쌀 가공품이 저렴하게 판매된다면 잘 팔릴 것으로 사료됨.



< 북경 까르푸 쌀 진열대 모습 >



< 매대 쌀 판매 모습>



< 수입 태국쌀 진열 모습 >

Ⅲ. 영향 및 시사점

■ 중국 쌀 품질은 우수한편, 가격 국내산의 1/3 수준

- 중국 출장중에 북대황그룹제품전시장에서 구입한 “오상쌀(녹색식품, 1등급)”에 대한 가족들의 품평을 들어본 결과, 올해 집에서 먹어보았던 2007년산 “지평선 쌀”, “순천쌀”, “한눈에 반한 쌀”, “철원 오대미” 쌀 맛이나 품위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거나 더 좋은 편이라고 하였음.
- 가격은 12.5元/2.5kg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13,000원/20kg 정도임. 국내 소비자 쌀가격(40,000원/20kg)과 비교해 보면, 1/3 수준임.
- 북경 까르푸 매대쌀 가격(1.35元/500g=7020원/20kg)은 국내소비자 쌀 가격의 18% 수준임.
- 현재 쌀은 최소시장접근(MMA) 물량만 국영무역으로 수입되어 시판되고 있지만, 민간무역이 가능해진다면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 쌀의 수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식당, 급식 등 대형소비처에서의 구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햇반”같은 간편조리식 쌀 가공품은 틈새시장을 노려볼만 할 듯

- 중국 쌀 가격은 한국 쌀 가격보다 더 다양하여 소득 차이에 따른 다양한 쌀 수요가 존재함.
- 중국 대형유통업체의 소비자 쌀 가격은 1.35~5.65元/500g으로 다양함. 최고가미는 최저가미의 4배 수준임.
- 한국의 소비자 쌀 가격은 30,000~60,000원/20kg으로 최고가미는 최저가미의 2배 수준임.
- 중국인은 외식을 많이 하는 편이며, 핵가족화가 되면서 가정에서 밥을 할 기회가 한국보다 적어 햇반같은 간편조리식 쌀 가공품이 저렴하게 판매된다면 잘 팔릴 것으로 보임.